

Thematic Radar

Ep. 44 9월 FOMC 이후 전략: 인플레이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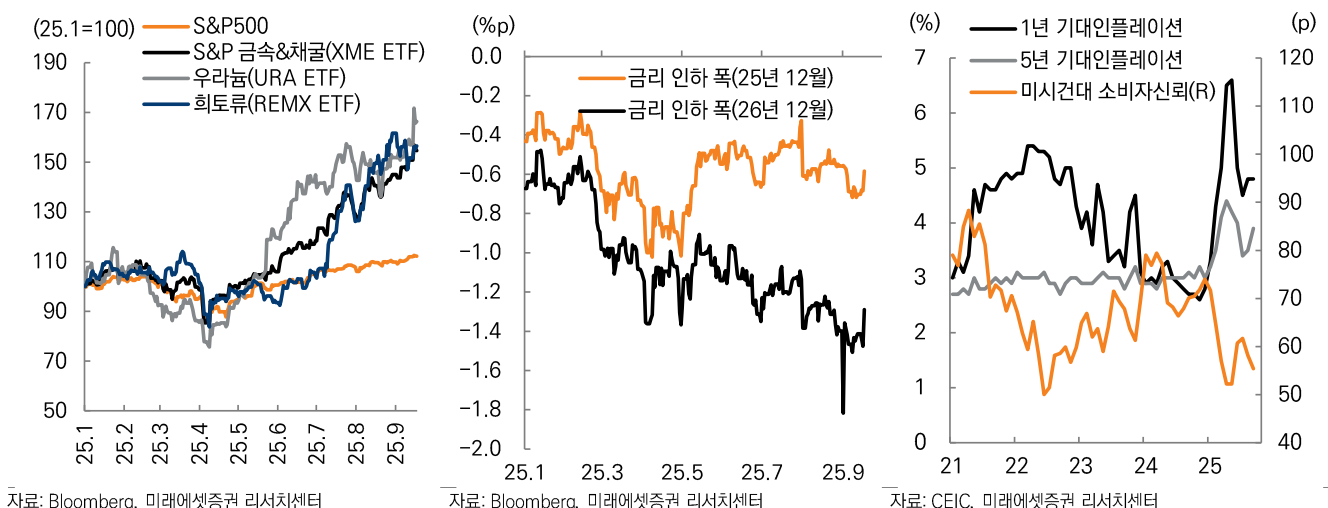
- 9월 FOMC에서 연준은 25bp 금리 인하 단행. 7월 FOMC와는 달리 고용 시장 둔화에 초점을 맞춘 결정
- 다만 인플레이션이 상승 중인 환경에서 금리 인하 단행.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
-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비해 인플레이 헷지 성향을 지닌 원자재 관련 테마(우라늄, 희토류 등)에 관심을 키울 시점

9월 FOMC에서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25bp 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는 4.0~4.25% 범위로 내려갔다. 점도표를 통해서 25bp 기준 추가 2회 인하를 시사했다. 일각에서 기대하던 50bp 인하는 미란 신임 연준 이사만이 지지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치중됐던 지난 7월 FOMC에 비해 이번에는 고용 시장 둔화에 초점을 맞춘 영향이다. 장중 변동성은 겪었지만 주식 시장은 일단 이번 FOMC 결과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 모습이다.

다만 향후 금리 인하폭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우선 연준의 전망치와 결정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파월 의장은 고용 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강조했지만 경제전망(SEP)에서는 2026년 실업률이 4.4%(6월 FOMC: 4.5%) 하향 조정됐고, 실질 GDP 전망치는 25, 26, 27년에 걸쳐 상향 조정됐다. 향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생각도 갈리는 모습이다. 파월 의장은 중간값은 3.6% 이지만, 연준 위원들의 분포를 보면 2회 이하 이상을 생각하는 위원은 10명, 2회 미만으로 판단하는 위원 수는 9명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점도표를 확정된 결과로 보기 않고 확률 분포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9월 FOMC 이후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25년, 26년 금리 인하 폭은 오히려 위축됐다.

또한 이번에는 고용 시장 환경이 부각됐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재차 고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SEP에서 26년 핵심 PCE 전망치도 2.4%에서 2.6%로 상향돼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속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건데, 앞으로 금리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소비자들의 장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재차 상승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헷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원자재 관련 테마에 관심을 키울 시점이다. 고용 시장에서 비롯된 경기 둔화 우려는 산업용 원자재에는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금과 더불어 정책적 도움을 받는 희토류, 우라늄 채굴 기업은 경기 둔화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해당 기업들은 4월 상호관세 부과 이후 S&P500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환경을 감안하면 지수 대비 상대적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그림 1. S&P500과 채굴 기업들의 주가 추이 그림 2.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폭 ↓ 그림 3. 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